

보도시점 바로 보도하여 배포 2026. 8. 13.(목)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폭염가뭄녹조에 수질안전 총력 “고도정수 필수재 활성탄 자립 기반 강화”

- 13일 덕소정수장 활성탄 재생시설 건설 현장 찾아 진행 상황 점검
- 적기 준공으로 활성탄 대외 의존 줄이고 수급 안정성 강화
- 취수원 관리부터 고도처리까지 전 단계 대응으로 고품질 물 공급 최우선

가뭄과 폭염이 지속되며 수질 안전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이 고도정수처리 핵심 소재인 활성탄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윤석대 사장은 8월 13일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정수장을 찾아 현재 조성 중인 입상활성탄 재생시설의 공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하절기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선제 대응 태세를 살폈다.

이날 윤석대 사장은 극한기후로 수질 변동성이 커질수록 정수처리의 핵심인 입상활성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고도정수처리 공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기 준공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하절기 상류 취수원의 조류 및 맛·냄새 유발 물질 유입에 대비해 먹는 물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보할 것도 주문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취수원 수질 변동에도 고품질 수돗물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취수원 및 정수장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취수원에는 녹조저감설비를 즉각 투입해 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녹조 영향이 적은 심층수를 선택적으로 취수하며 원수 수질을 관리 중이다.

정수장에서는 고도정수처리 공정을 상시 가동하여 수질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고도정수처리는 오존을 통한 산화 작용과 미세한 구멍이 촘촘한 입상

활성탄으로 맛과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까지 흡착-제거하는 기술이다. 수질 상태와 관계없이 고품질의 수돗물을 상시 공급할 수 있다.

고도정수처리의 관건은 활성탄이다. 활성탄은 국내 수급 여건상 해외 의존도가 높으며, 기후변화로 정수처리의 필요성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도정수 공정의 핵심 소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역량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활성탄을 다시 활용하는 자원 순환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덕소정수장에 조성 중인 재생시설은 수급 안정을 위한 핵심 인프라다. 하루 48m³ 처리 규모로 조성 중인 재생시설은 한강 유역 등 10개 광역정수장에 고품질 활성탄을 정기적으로 순환 공급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자체 조달 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고도처리 공정의 연속성과 효율성도 한층 높여나갈 계획이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취수원부터 정수처리까지 물 공급 전 단계를 철저히 관리하여 폭염과 가뭄, 녹조 등 수질 변동 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활성탄 재생시설을 적기 완공해 수급 자립 기반을 다지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 물관리 시스템을 지속해서 강화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관련 사진 2매(별첨). 끝.

담당 부서	수도관리처 수돗물품질부	책임자	부 장	전은주 (042-629-3481)
		담당자	차 장	이진희 (042-629-3482)



[사진] 1.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사진 가운데)이 8월 13일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정수장을 찾아 현재 조성 중인 입상활성탄 재생시설의 공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덕소정수장에 조성 중인 재생시설은 수급 안정을 위한 핵심 인프라다. 하루 48m³ 처리 규모로 조성 중인 재생시설은 한강 유역 등 10개 광역정수장에 고품질 활성탄을 정기적으로 순환 공급하게 된다.

이날 윤석대 사장은 하절기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선제 대응 태세를 살피며, 먹는 물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 2.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사진 가운데)이 8월 13일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정수장을 찾아 현재 조성 중인 입상활성탄 재생시설의 공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